

삼성석유화학, PTA 70만톤 중단

서산공장 중단 ... 삼남석유화학 여천 만톤 중단에 KP도 감산 검토

섬유·석유화학산업의 감산이 확산되고 있다.

나일론(Nylon), 스판덱스(Spandex) 감산 등에 이어 이번에는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 원료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를 생산하는 국내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산에 들어갔거나 곧 감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27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180만톤 상당의 PTA를 생산하는 삼성석유화학은 9월26일부터 70만톤 상당의 서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일단 10월8일까지 일정으로 감산에 들어가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원가 상승과 재고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가동하더라도 100% 가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남석유화학도 170만톤의 PTA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여천공장의 55만톤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

KP케미칼도 10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수요를 지켜본 뒤 감산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PTA 원료로 사용되는 P-X(Para-Xylene) 가격이 톤당 1400달러 가량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PTA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수급 상황이어서 감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고유가 흐름과 맞물려 P-X의 원천인 나프타(Naphtha)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희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27>